

유리피판 시대의 대흉근피판의 역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최은창 · 김철호* · 김세현 · 김영호 · 김광문

배경 및 목적 : 안전하며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리피판은 최근 두경부 결손의 재건에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나 과거에 많이 사용되던 대흉근피판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으며 유리피판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어 유리피판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시대에 있어서 대흉근피판의 적응증과 그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 및 방법 : 1991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두경부암중의 절제술을 받고 그 결손부위를 대흉근피판 혹은 유리피판으로 재건하였던 202예를 대상으로 후향적 고찰을 하였다. 대흉근피판은 61예, 유리피판은 146예에서 사용되었다. 유리피판의 종류는 상완유리피판이 108예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유리피판이 15예, 복직근유리피판이 9예, 비골유리피판이 5예, 외측상박 유리피판이 3예, 광배근유리피판이 6예이었다.

결 과 : 연도별 피판 사용례를 1998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을 때 1998년 이전인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사용한 유리피판은 47예이었고 대흉근피판은 42예로 거의 같은 사용빈도를 보였다. 반면에 유리피판은 1998년부터 2001년 6월까지 사용한 예가 99예이었으며 대흉근피판은 19예에서 사용하여 5대1의 비율을 보였다. 대흉근피판의 사용목적으로 점막결손에 사용한 경우가 33예, 경

부피부결손에 22예, 안면피부에 4예, 점막결손과 경부피부를 동시에 재건한 경우가 2예이었다. 유리피판의 경우 점막결손의 재건예가 129(88.4%)예로 대부분이었으며 점막과 안면피부의 동시재건이 9예, 안면피부재건이 4예, 안면피부와 연조직 결손의 재건이 4예이었다. 대흉근피판의 사용목적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총 42예중 30예(70%)에서 점막결손의 재건 목적으로, 12례(29%)에서 피부의 재건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1998년 이후에는 총19예에서 15예(79%)를 경부피부의 재건에 사용하였고 점막결손의 재건 목적으로는 단 2예에서만 사용되었다. 유리피판의 경우는 1998년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없이 1998년 이전에 47예중 41예(87%)에서 점막결손의 재건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99예 중 88예(89%)에서 점막재건의 결손에 사용하였다. 피판의 피사가 있었던 예는 대흉근피판이 3예이었으며 전완유리피판이 2예, 공장유리피판이 1예이었다.

결 론 : 대흉근피판은 유리피판의 보편화와 그 안전성으로 인하여 두경부 영역의 재건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고려되는 재건방법은 아니지만 경부 혹은 안면피부의 단독 결손, 장시간 수술이 합병증을 유발할 경우, 경부 혈관 상태가 불량한 경우, 유리피판술이 실패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우수한 피판이다.